

學理論들은 보다 포괄적인 이론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며 동시에 경험주의 과학관이기도 하다. (2. 日 常 的 科學觀과 3. 經驗主義의 科學觀) 이에 맞서 과학이론들은 그것을 지배하는 paradigm들이 새로운 것으로 代置됨으로써 不連續的 革命的 歷史를 이룬다는 것이 Kuhn의 과학혁명론이다. 이에 따르면 paradigm들은 서로 같은 尺度에 의해 比較不能(incommensurables)이며, 그들 간의 논쟁은 논리적 증명이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판가름나지 않고 서로 엇갈린 말이나 주고 받든가 循環論法에 빠지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paradigm의 變化는 과학언어의 意味變化를 초래하고 研究對象世界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4. Kuhn의 科學革命論)

이와같은 內容의 Kuhn의 科學革命論은 科學에 있어서 客觀性和 合理性을 포기하고 科學을 主觀的이고, 非合理的인 활동으로 만들어버렸다는 Scheffler의 批判이 5. Scheffler의 Kuhn 批判에서 기술되고 있다. 6. Kuhn과 Meiland의 弁護는 Kuhn 自身の 응답과 Meiland의 Kuhn 옹호의 요지를 담고 있다. Kuhn은 Scheffler 등의 비판이 모두 오해에 기인된다고 보며 자신은 결코 主觀主義者나 非合理主義者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변호를 위해 Kuhn은 理論選擇의 價値로서 正確性, 無矛盾性, 包括性, 單純性, 有效性을 제시하며 그것을 근거로 이론선택의 客觀的 측면을 논한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와 그가치의 運用에서 파생되는 主觀的인 측면을 구별시킴으로써 자신은 反客觀的인 主觀主義者도 아니고, 判定不能의 의미의 주관주의자도 아니라고 한다. Meiland는 어느 한 이론을 點檢하는 데 쓰여지는 獨自的 標準이 되는 I.S. 客觀性和 이론들 간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데 필요한 S.I.S. 客觀性을 구분하여 Kuhn은 이 두가지 客觀性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논하면서 Kuhn과 Scheffler의 논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客觀性이 아니고 眞理問題라고 부연한다.

7. Scheffler와 Siegel의 批判은 이런 옹호에 대한 Scheffler와 Siegel의 再批判을 간추린 것이다. Kuhn은 자신이 主觀性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理由가 이론선택의 규칙들의 確立적 적용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Scheffler는 그런 確立성을 요구한 바 없으며 경험된 paradigm을 비교하고 그 長短點을 합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客觀性을 요구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Siegel은 Meiland가 논의의 초점을 眞理問題로 바꾸는 데 반대하며 Kuhn이 I.S. 客觀性和 S.I.S. 客觀性을 가졌다는 Meiland의 논지를 반박한다. 그러한 論據로서 Siegel이 제시한 것은 Kuhn의 주장에서 anomaly와 incommensurability를 다같이 주장하는 것이 矛盾임을 밝히고 이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론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데서 나타나는 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結言에서 필자는 Kuhn의 動的 科學觀이 경험주의의 靜的 科學觀의 결점을 비판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Kuhn 자신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incommensurability 체계는 결국 主觀主義, 非合理主義에 빠져들게 되는 점을 Scheffler나 Siegel과 더불어 필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Stegmüller의 道具的 科學觀에서 靜的 對 動的 科學觀의 綜合의 실마리를 구해본다. 특히 필자는 Kuhn이 앞문으로 내보낸 累積的 進歩說을 뒷문으로 받아들인 점과 Kuhn이 科學革命을 政治革命에 비유한 데에서 파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론의 理論과 社會學의 現實

成均館大 社會學科

鄭 昌 秀

Thomas Kuhn의 「科學革命的 構造」가 1962년에 初刊이 된 以來, Kuhn의 觀點을 根據로 하여 社會學의 本質과 現實을 다룬 많은 論文과 著書들이 잇달아 나왔다. 이들 研究結果를 놓고 우리가 우선 느끼게 되는 것은 Kuhn의 理論을 社會學을 對象으로 한 具體的인 分析의 道具로서 적용하는 데 심각한 問題點이 있다는 것이다. 問題點을 가장 端的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社會學의 paradigm의인 地位에 關해 學者들 사이에 상당히 큰 意見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하나의 代表的인 paradigm이 社會學研究의 主潮를 形成하고 있다는 立場으로부터 學者에 따라서는 여섯에서 여덟개의 paradigm들이 병립하고 있다는 상이한 主場들을 내 세우고 있다. 이렇게 學者들 간에 意見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理由로서 어느 한가지 原因을 局限해서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Kuhn 自身이 提示하는 paradigm이라는 개념 自体가 그 해석과 사용에 혼란이 原因이 되고 있다는 點이 지적될

수 있다. 즉, Kuhn 自身이 그 개념을 많은 다른 意味를 가지고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點이다. 또한, Kuhn의 주된 分析의 對象이 自然科學分野였다는 點에서 그의 理論이 社會科學의 現實을 담는 데 無理가 있으리라는 의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점에서 역시 社會學者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편견에 따라 社會學의 現實을 수용하는 데 편의하다고 보는 方向에서 여러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덧붙여 이 문제와 關聯하여 發表된 연구결과들의 大部分이 어떤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直觀的인 結論과 그러한 結論을 수식하는 데 일관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 社會學者들 간의 異見을 초래하고 있는 要因으로서 실증적인 검증의 문제 역시 배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學者들 간의 견해의 差異의 상당한 부분은 社會學의 主潮를 形成하고 있는 paradigm 또는 paradigm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해 봄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에 든 문제점들 가운데 개념의 모호성에 關한 問題는 Kuhn 自身이 그의 著書의 증보판(1970년刊)에서 시도한 해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우선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自然科學分野와 現實을 달리하는 社會學의 性格을 收容하기 위해 paradigm의 개념에 어떤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必要性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具體적으로 어떠한 方向에서 그러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問題에 關하여 社會學은 Kuhn이 말하는 <正規科學> (normal science)로서보다는 Masterman이나 Ritzer가 주장하는 바대로 <複數paradigm科學> (multiple paradigm science)의 次元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異議를 提起하는 學者들은 드문 듯싶다. 그러나 이렇게 수정된 次元에서의 paradigm의 개념이 社會學의 현실을 훨씬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일단 수궁을 하더라도 과연 社會學에 있어서의 研究活動으로부터 社會現象에 對한 一般的 觀點(general orientations), 이보다 좀 더 具體적인 說明의 體系로서의 <理論> (theory), <方法論> (methodology), <研究技法> (research techniques) 및 <研究例> (exemplars) 등의

여러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이루어진 어떤 전체적인 복합단위가 실제로 식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가는 경험적인 검증에 의해서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남게 된다.

이에 덧붙여 지적되어야 할 것은, 여러 社會學的인 觀點들의 相互補完性을 주장하거나 선택적이며 부분적인 收容을 주장하는 社會學者들이多數를 點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많은 社會學者들은 어떤 정해진 觀點의 옹호자라기보다는 객관적 평가자 또는 비판자로서의 위치를 擇하는 傾向을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社會學的인 paradigm의 地位는 과연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또한 이에 앞서, 社會學의 性格을 <paradigm의> 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과 과제들은 社會學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Kuhn의 理論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政治心理學 理論의 Paradigm의 地位

高麗大 行政學科 李 宗 范

본 論文의 목적은 정치심리학 이론들의 Paradigm적 지위를 음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정치심리학 이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1)정신분석 이론과 인간주의심리학 이론, (2)학습이론, (3)태도 이론과 (4)동기 이론 등을 차례로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둘째, 종합적으로 그 Paradigm적 지위와 사회과학에 있어서 Kuhn이 의미하는 정상과학, Paradigm의 의미도 아울러 재음미하려고 한다.

小理論 중심으로 정치심리학 이론의 Paradigm적 지위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1) 說明—理論의 評價基準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측의 精確性 (Accuracy), 一般性 (Generality), 簡潔性 (Parsimony or Economy), 因果性 (Causality)

(2) 概念의 定義와 관련되는 一般性和 精確性 및 그 測定上으로 나타나는 妥當性的 隔差 (Validity Gap)

(3) 理論의 分析單位 (Units of Analysis)와 測定單位 (Units of Measurement) 간의 차이로 생기는 推定上의 妥當性

(4) 주요문제제기가능성 (Puzzle-Generating